

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승리의 통치자, 영원한 제사장

2026년 7월 6일(월)

- 찬송 (33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시편 110:1~7) 다함께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나 이르시기를 너는 뿔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110:4)

- 묵상자료 인도자

오늘 함께 읽은 시는 시편 중에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선택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지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자기중심적인지도 모르며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정말 악비규환 전쟁터가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의 권세는 패퇴했습니다.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던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었던 죽음조차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과 자유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뿔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 더 이상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의 마음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뿔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고 합니다. 뿔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을 맞아준 살렘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로 인해 아파하는 존재이지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힘과 권위로 왕같이 통치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뿔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는 왕이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공감하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 기도 인도자

하나님, 참된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왕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